

January 24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

• 출애굽기 23:1-3

본래 제9계명은 ‘위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증언에 의존했기 때문에 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피할 법적 장치로서 2인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인이 앞장서서 형을 집행했으며,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위증한 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신 19:18-19).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레 5:1).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금하셨을까요? 우리의 거짓말이 이웃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 19:19, 새번역). 성경에서 거짓말이 용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기 모세는 가족의 거짓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출 2장).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 할 왕을 세우러 가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삼상 16:2).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삼상 20:27-29). 이 거짓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고,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량한 척, 종교적인 척하지만, 내면은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종종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꼭 정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만족과 이기심에 기반을 둔 솔직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생각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주관적 사실이 꼭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 ❶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 ❷ 진실과 정직의 말이라고 오해하며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습니까?